

경 축

第17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出演

# 강강술래놀이



전 라 남 도

## 『강강술래 놀이』解説

「강강술래 놀이」는 八月 한가윗날, 휘영청 달 밝은 밤에 마을의 꽃다운 處女들과 아낙네들이 손과 손을 마주 잡고 넓은 뜰을 누비면서 뜰이 좁을세라 노래하고 춤추며 또 여러가지 놀이를 번갈아 가면서 흥겨웁게 노는 全南地方의 固有한 民俗놀이이다.

東山에 둥근달이 떠 오르면 달맞이를 한 處女들은 치렁치렁한 머리채에 紅甲紗 땀기를 늘어뜨리고, 아낙네들은 새옷으로 곱게 갈아 입은채 구성진 노랫가락에 맞추어 외씨같은 발길을 가볍게 옮기면서 圓舞하는가 하면은 多樣한 여러가지 놀이들을 번갈아가면서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뛰고 노는 모습은 南道땀의 精髓라고 아니할 수 없다. 이러한 「강강술래 놀이」가 近來에 와서는 그 固有한 바탕 가락과 놀이 形態가 變質되어 그 참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어 가고 있다.

이에 第16回 全國 民俗藝術競演大會를 契機로 「강강술래 놀이」의 본고장이랄 수 있는 海南郡右水營 마을에 예로부터 傳承되고 있었던 가락과 여러 놀이 形態를 되찾아 이를 定立化시켜 再現하기에 이르렀고, 이를 다시 손질하여 이번에 出演하게 된 것이다. 「강강술래 놀이」하면 흔히 손과 손을 마주잡고 圓舞하는 놀이로만 알려져 있지만 實은 다음과 같은 여러 形態의 놀이들이 어울려 밤이 가는줄 모르게 뛰고 노는 것이다.

-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① 긴 강강술래  | ② 중 강강술래 | ③ 잣은 강강술래 |
| ④ 남생아 놀아라 | ⑤ 고사리 꺾자 | ⑥ 청어 엮자   |
| ⑦ 청어 풀자   | ⑧ 지와 밝기  | ⑨ 덕석몰이    |
| ⑩ 덕석 풀기   | ⑪ 권취새끼   | ⑫ 門 열러라   |
| ⑬ 가마 등등   | ⑭ 수건 찾기  | ⑮ 도굿대 당기기 |

손과 손을 다정하게 마주 잡고 달무리처럼 끝 없는 둥근 원을 그리면서 豐年을 謳歌하고 여러가지 놀이를 展開하면서 親睦과 協同心을 기르고 豐饒를 만끽하는 農耕儀禮의 하나인 收穫祭 놀이랄 수 있는 이 「강강술래 놀이」야 말로 우리 民族의 얼과 멋이 담긴 永遠한 마음의 보금자리라 할 수 있다.

이 놀이가 變質되지 않은채, 한가윗날 밤이면 마을과 마을에서 그 노래소리 울려 퍼지고 여러 形態의 놀이를 하면서 웃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메아리 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.

「청어엮자」놀이



「고사리 꺾자」놀이



# 『강강술래 놀이』가사

## 1. 진 강강술래

- 강강 술래
- 강강 술래

- 달떠온다 달떠온다(백입소리)
- 강강 술래(반는 소리)
- 동해동창 달떠온다
- 저달이 누달인가
- 방호방내 달이라네
- 방호방은 어디가고
- 저달뜬줄 모르는가

## 2. 중 강강술래

- 오동추야 달은밝고
- 우리님 생각 절로난다
- 입아입아 노이나말아
- 너출라고 해온보신
- 너안주고 누구를출까
- 새벽서리 찬바람에
- 울고가는 저기러가
- 울었음면 너울었지
- 잠든나를 깨와가나
- 편지상통 기러기면
- 편지한장 전해주라
- 문을열고 나와보니
- 기러기는 간곳없고
- 억만강의 구름속에
- 달과별이 열렸으니
- 검은글씨 흰종이로
- 우리부친 보련만은

- 요내나는 언제살아
- 우리부친 만나볼까

## 3. 잣은 강강술래

- 옥신옥신 뛰어보세
- 얇은마당 높아지게
- 높은마당 깊어지게
- 옥신옥신 뛰어보세
- 나주영산 진골목에
- 은또가리 풀에걸고
- 지추캐는 저큰아가
- 니어집이 니어디냐
- 내아집을 찾아라면
- 검은구름 방울속에
- 열두칸 지와집에
- 아홉칸 대북방에
- 화초병풍 둘러치고
- 니귀에 핑경달고
- 잉그렁쨍그렁 그소리들고
- 날만나 찾아오게
- 당글당글 당글부채
- 은도당글 남도부채
- 스믈양주고 샷인부채
- 오뉴월이 들어어도
- 못다부친 내정이야
- 꽃아꽃아 요내꽃아
- 나는너를 애리다고
- 손한번도 안랬더니
- 우리나래 재빌상이
- 이내꽃을 경계가네

- 금을주랴 은을주랴
- 은도금도 나는싫고
- 요내꽃만 주고가게

## 4. 남생아 놀아라

- 남생아 놀아라
- 절래절래 잘논다

## 5. 고사리 꺾자

- 고사리 대사리 경자
- 만부대사리 경자
- 유자 콩콩 재미나보자
- 아장장장 벌이어
- 경자경자 고사리를 경자
- 수양산 고사리 꺾겨다가
- 우리아배 반찬하자
- 경자경자 고사리를 경자
- 지리산고사리 꺾겨다가
- 우리엄메 반찬하자

## 6. 청어 역짜

- 청청 청어영짜
- 위도군산 청어영짜
- 영짜영짜 청어영짜
- 위도군산 청어영짜

## 7. 청어 풀자

- 청청 청어풀자
- 위도군산 청어풀자
- 풀자풀자 청어풀자
- 위도군산 청어풀자

「친쥬새끼」놀이



「문열어라」놀이



### 8. 지와 밭기

- 어디골 지완가  
장자 장자골 지와세
- 밭자밭자 지와를밭자
- 어디골 지완가  
장자골 지와세
- 어디골 지완가  
전라도 지와세

### 9. 덕석 물이

- 물자 물자 덕석을 물자  
물자 물자 덕석을 물자

### 10. 덕석 풀기

- 풀자 풀자 덕석을 풀자  
풀자 풀자 덕석을 풀자

### 11. 친취새끼

- 친취새끼 짚죽짚죽  
가사리 벗이어

#### 〈꼬리따세〉

우 ~ 우 ~

#### 〈꼬리가 잡히면〉 (꼬리를잡음)

잡았네 잡았네  
친취새끼를 잡았네  
콩하나 풀한나 땡겼더니  
콩차두 풀차두 되었네  
콩 콩 전라도  
친취새끼를 잡았네  
콩한나 풀한나 땡겼더니  
콩차두 풀차두 되었네

### 12. 문 열어라

-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주소

○열쇠없어 못열겠네

### 13. 가미등등

가마타세 위 ——  
가마피세 위 ——  
오동추야 달은 밝고 위 ——  
에헤 헤헤—헤 오호호 오호 오  
호 위 ——  
임의생각 절로난다 위 ——  
굶은독 넘어딩고 아면 그렇게  
잔잔독 밭아딘소 아면 그렇게  
에헤 헤헤—헤 오호호호호호  
오호 ~

### 14. 잣은 강강술래

- 저건너 묵은발은
- 쟁기가 없어 묵었는가
- 임자가 없어 묵었는가
- 잘된데는 차조갈고
- 못된데는 모조갈고
- 머리머리 돈부심어
- 돈부따는 저처자야
- 니머리 끝에 디린 멍기
- 공단이나 비단이나
- 비단이면 멋을하고
- 공단이면 멋을할래
- 하늘에는 별이총총
- 집앞에는 대가총총
- 오복소복 봄배추는
- 이슬오기만 기다리고
- 보기좋은 해당화는
- 나비오기만 기다린다
- 산아산아 수영산아
- 놀이좋은 유달산아

### 15. 중 강강술래

- 쭈시대야 시만고야
- 만해동동 우리엄매
- 어느골가 이별하고
- 날크는줄 모르는가
- 널크는줄 안다만은
- 가고잡어 내나가나
- 차마서려 내가갓네

### 16. 진 강강술래

- 강강 술래
- 강강 술래
- 술래 술래야  
강강 술래
- 술래소리 어디갔다
- 때만찾아 잘도오네
- 달저문다 달저문다
- 저달이 다저르면
- 술래소리 끝이나네

### 17. 술 래

- 술래 술래가 술래야
- 어매를 길러서 길상사
- 이모를 기러서 모초단
- 재인장모 강호단
- 처남남매 맹호단
- 충청도 비단은 모시비단
- 강원도 비단은 곱센추
- 이비단 저비단 다해도  
영초 모초가 상일래라
- 고부고부 머리고부
- 머리나 칭칭 넘겨서
- 잘자리 짚세기
- 밭이나 벗고도 더 좋네

